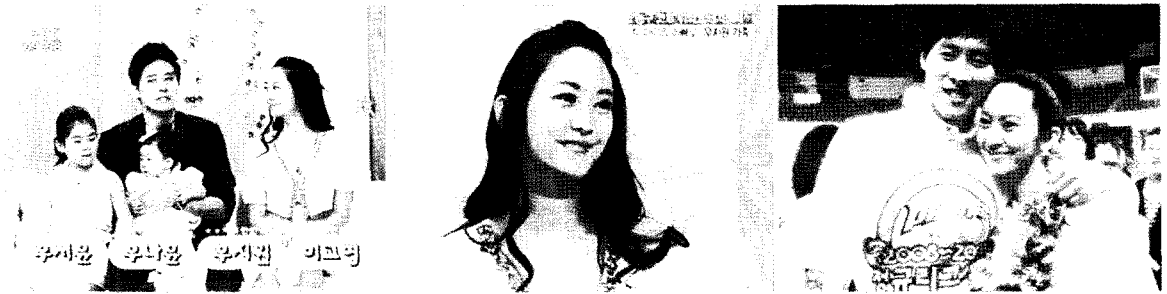


농구코트 위의 황태자,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들었던 농구스타 우지원 선수의 오리사랑

▶KBS 2TV 「자식진 최원정의 여유만만, 2009년 5월 7일(목) 방송분」

농구코트 위의 황태자,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들었던 농구스타, 우지원. 그가 180도 확 달라졌다. 우지원은 육아의 달인? 어느덧 두 딸아이의 아빠가 된 우지원. 드디어 공개되는 미모의 아내, 이교영씨. 그녀의 S라인 다이어트의 비법과 우지원 선수의 러브하우스를 공개한다. 남편으로선 백 점, 아빠로서는 만 점짜리 아빠 우지원. 화려한 농구에서 평범한 아빠가 된 우지원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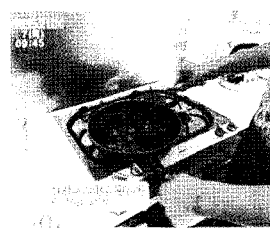


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, 여유만만 제작진이 성남에 위치한 우지원의 집을 찾았다.

조심스레 집안으로 들어선 제작진. 아니 그런데 집주인은 대체 어디에?

드디어 만났다! 농구코트의 황태자, 우지원! 얼마 전, 어여쁜 새 가족이 생겼다고...

지난 겨울,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난 둘째 딸, 나윤이. 꽃미남 아빠의 외모를 쏙 빼닮았다.



아내를 위해 요리에 나선 우지원.

[PD] 요리를 우지원 선수가 더 잘하세요?

[우지원] 자주는 못해도 직

접 요리해 먹는 게 기본전환점 좋은 것 같아요.

[PD] 오늘 아내를 위해 만드는 특별요리가 뭔가요?

[우지원] 미나리와 함께하는 오리구이입니다. 제가 또 오리





홍보대사로 위촉되서...

[PD] 아 그래요? 무슨 연관으로?

[우지원] 오리농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... 사실은 제가 많이 먹으려구요. 오리고기 많이 주신다기에...(웃음)



드디어 맛깔스런 우지원 표 오리구이 완성! 제일 먼저 아내에게 한 입 먹여주는데... 남편의 사랑이 듬뿍 담긴 오리요리.

과연 그 맛은? 대만족~!

[우지원]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줘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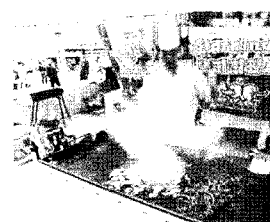
이번엔 아내가 한 입 먹여줄 차례. 두 사람이 오리고기를 먹는데 닭살이 돋는다.

[우지원] 이걸 우리만 먹

기는 아까워. 우리만 맛있다고 하면 짜고치는 고스톱이야. 카메라 감독님 한번 드셔보시죠. 맛있으면 꼬덕꼬덕 해주세요.



이번에는 행사장으로 향한 우지원. 어찌 휴식기간이 더 바빠다. 전국 팔도의 각종 오리요리들이 준비한 이곳. 바로 오리



페스티벌 현장인데... 세상어나~!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간다. 그 순간 어디로 갔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우

지원. 어디로 갔나 했더니 시민들에게 오리고기를 나눠주고 있었다. 다름 아니라 이번에 오리고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...



위촉장도 받고, 본격적으로 홍보대사 활동에 들어간 우지원, 팬 사인회에 나섰는데 코트의 황태자다운 인기는 이

곳에서도 알 수 있었다.